

삼국 · 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정 용 숙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삼국시대 부산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 III. 통일신라시대 부산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 IV. 신라말 호족세력의
성장과 부산의 동향
- V. 맺음말

I. 머리말

부산은 한반도의 최동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더우면서 강우량과 습도가 적당한, 한반도에서 가장 사람살기 쾌적한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¹⁾ 『新增 東國輿地勝覽』²⁾ 23, 동래군조에 의하면, 동으로는 바다, 남쪽에는 동래군, 서쪽은 양산군, 북쪽은 울산군에 인접되어, 농산물은 물론이고 광어·청어·대구어·홍합·해삼 등 어패류와 미역·가사리·김 등 해조류 및 석류·감·호도 등 실과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부산은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온난하여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부산근교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이 이를 말해준다.³⁾

철기문화가 한반도 남부에 전파되고 전국에 정치적 통합체가 나타나던 무렵에는 부산에도 읍락단위의 소국이 형성되었고, 신라가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하면서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던 시기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문헌사료에 보이는 초기 郡名은 거칠산군이었으나, 8세기 중엽 신라 경덕왕 때에 東萊로 개명되었다. 신라말 전국에 호족이 성장하고 후삼국으로 분열하던 무렵에는, 부산의 근교에도 호족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여, 그 세력판도를 넓히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해 간 호족도 있었으나, 후삼국이 고려로 통합되고 지방의 호족세력이 향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사회의 토착적 성씨집단으로 편제된다.

부산의 이러한 여러 단계의 모습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였던

1) 문승의, 「釜山の 기후환경」 『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라이프신문사, 1992, p. 246.

2) 이후 『東國輿地勝覽』으로 표기한다.

3) 한규철, 「해운대의 구석기 사람」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힘께, 1999.

소국들이 어떻게 통합되어 고대국가로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사회의 역동성이 국가사회의 사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독립적인 정치단위였던 소국이 어떻게 신라에 통합되고 중앙집권국가의 지방 군현으로 개편되어 가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삼국시대 부산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삼국이 정립되기 이전, 3c 전반기 한반도 남부 일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三國志』東夷傳이 있다. 이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는 三韓으로 통칭되는 8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삼한의 위치 비정을 두고 학설상의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통설로는 馬韓 54국을 충청·전라도 일대에 비정하고 여기에서 백제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辰韓 12국은 낙동강 동쪽 경상도 지역에 해당되며, 그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이 신라의 모체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卞韓은 낙동강 서쪽 하류 일원에 비정하며, 여기에서 가야 연맹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

부산에도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弁辰 12국중의 하나인 瀆盧國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 한다.⁵⁾ 독로국이 동래지방에 비정되는 이유는 『삼국지』동이전에 ‘독로국은 왜와 더불어 경계가 접하여 있다’⁶⁾ 라 하고 있는데, 지리상 일본과 가장 근접하며, 조선시대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가 배를 타고 출발하던 장소가 부

4)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重版 일조각, 1996, p.48.

邊太燮, 『四訂版 韓國史通論』삼영사, 1996, p.51.

5) 丁仲煥, 「瀆盧國考」『白山學報』8, 1970.

千寬宇, 「辰·弁韓諸國의 位置試論」『白山學報』20, 1976, pp. 227~228.

6) 『三國志』東夷傳 韓傳 弁辰조.

산지방이고 보면,⁷⁾ 왜와 접하여 있다는 독로국은 부산 일대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⁸⁾ 독로의 음이 ‘독내’ ‘독나’로 바뀌고 다시 자음접변(子音接變)으로 ‘동나’ ‘동내’로 읽히며 결국 동래라는 미칭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⁹⁾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音相似만으로 지명비정을 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인데¹⁰⁾ 부산 동래의 복천동 고분군은 하나의 정치적 독립체가 존재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¹¹⁾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독로국의 존재를 뒷받침할 국내 사료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참고된다. 『동국여지승람』에

동래현은 옛날의 菴山國 또는 萊山國인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居柒山郡을 두었으며 경덕왕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新增東國輿地勝覽』 23, 東萊縣 建置沿革條)

라 하였고, 『삼국사기』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동래군은 본래 居柒山郡인데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영현이 둘이다. 東平縣은 본래 大飡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으며, 機張縣은 본래 甲火良谷縣인데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三國史記』 44, 雜志 3 地理 1)

7) 申維翰의 『海遊錄』에 의하면, 일본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絶影島에 이르러 숙박하며, 좋은 날씨를 가려 대마도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

8) 瀆盧國의 위치를 거제도로 보는 설이 있고, (丁若鏞, 『與猶堂全書』 6, 疆域考 1.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61, pp. 66~67) 부산의 대대로로 보는 설이 있다.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977, 141~144.)

9) 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 8, 1970.

10) 金泰植, 『加耶聯盟史』 일조각, 1993, p. 77.

11) 鄭澄元, 「東萊福泉洞古墳群의 調査內容과 그 性格」 『韓國民族文化研究』 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1.

부산지방에는 일찍이 菴山國·萊山國이라고도 하는 독립된 소국이 있었으며¹²⁾, 신라에 병합된 뒤 거칠산군이 되었다고 한다. 장산국·내산국은 거칠산국으로도 불려졌는데¹³⁾, 거칠산국은 거칠다는 우리말에서 나온 것으로 菴山國·萊山國이라는 칭호와 서로 어울린다. 菴과 萊는 한자음만이 서로 다를 뿐, 그 뜻은 ‘잡초 우거진 장소’ 곧 거친 것을 의미하는 한자음이므로, 거칠산국의 또 다른 이칭으로 볼 수 있다. 독로국이 동래로 전화된 것이라면 동래의 萊와 萊山國의 萊가 동의동음이기 때문에, 거칠산국이 한자음으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동국여지승람』의 장산국·내산국, 『삼국지』 동이전의 독로국으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이전』에 기록된 3세기경의 진변한 24개국은 國邑으로 상정되며, 그 주변에는 小別邑과 읍락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읍主帥의 지배권력은 아직 미약하였는데, ‘국읍에는 비록 주수가 있으나 읍락이 섞여 있어 서로 잘 제어하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에서,¹⁴⁾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국읍과 읍락의 상대적 세력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¹⁵⁾

그러나 철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과 철제무기를 이용한 주변지역 통합으로 국읍과 국읍, 국읍과 읍락 간의 세력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또한 主帥는 대외교역을 주관하거나 물자교역활동을 주도하는 책임자 역할을 통해 財富를 축적하였고, 또 군사지휘권마저 장악하여 주변 읍락의 독립성을 축소시켜갔을 것이다.¹⁶⁾ 그리하여 진한지역에서는 경주에서 일어난 斯盧國이 주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진한 12국의 맹주로 성장하여 갔던 것이다.

낙동강 하류의 변한 12국은 金海 狗倭國이 중심국으로 성장하였

12) 『三國遺事』 3, 塔像 4 靈鷲寺조에도 菴山國·萊山國이라는 국호가 나온다.

13) 居柒山國의 국명은 『三國史記』 44, 居道列傳에 나온다.

14) 『三國志』 東夷傳 韓傳에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라 하였다.

15)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일조각. 1984. p.136.

16) 李賢惠, 『위의 책』 pp.125~129.

지만, 부산의 독로국은 여타 주변의 소국들과 함께 김해 구야국을 정점으로한 김해지역연맹체의 범주에 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삼한 시대의 독로국은 온천천·거제천·원호천이 합류하여 수영만으로 흐르는 동래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¹⁸⁾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한반도 각지역과 한군현 및 왜 등과 대외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¹⁹⁾

그렇다면 이처럼 독립적이었던 독로국이 언제쯤 신라에 복속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료가 참고된다.

居道는 그 族姓을 잃어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탈해 이사금을 섬겨 干이 되었는데, 당시에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이웃에 경계를 두고 있어 자못 나라의 근심이 되었다. 居道는 지방관이 되어 가만히 병합의 뜻을 품고 해마다 한번씩 여러 마필을 張吐의 들판에 모아 병사로 하여금 이를 타고 달리는 놀이를 하였는데, 당시인들이 이를 馬叔이라 하였다. 두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늘 구경하고 신라의 일상사로 여겨 의심치 않게 되었다. 이에 병마를 일으켜 불의에 습격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

(『三國史記』 44, 居道列傳)

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칠산국은 바로 동래에 세워졌던 독로국이고, 우시산국은 울산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므로, 이는 신라의 울산 및 부산정복 기사인 것이다. 그런데 그 정복된 시점을 탈해왕(57~79)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의 기년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신라 탈해

17) 백승충,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 『港都釜山』 18,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2, p.62.

18) 백승충, 「위의 논문」 p. 49.

19) 宣石悅,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p. 311. 및 백승충, 「위의 논문」 p. 45.

왕의 즉위에 얽힌 기록이 워낙 설화로 각색되어 있는 데다가 탈해 왕의 재위기간이 기원 1세기 후반이므로, 이 때 신라의 판도가 경남 일원의 동남해안을 석권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을 것으로는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⁰⁾

그렇다면 거도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병합이 아닌 일시적인 정복기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4세기 이후에 신라가 가야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던 상황을,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 신라 건국 초창기의 사실로 소급 인식하였던 데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의 부산병합과 거도의 마속놀이를 통한 위장전술은 신라의 대외팽창 정책의 가장 성공적이 사례로서 후일까지 회자되었던 듯하다.²¹⁾

실제로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판도에 들어가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고고학적 해석과 문헌사학적 해석에 차이가 있으며, 또 문헌사학이라 하더라도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신빙하는 경우와 초기 기록의 紀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병합된 시기를 상당히 이른 시기의 사실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사로국의 주변소국에 대한 정복사례가 사료상 대개 3c 후반 이전인 점을 들어, 늦어도 4세기 중반에는 정복사업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²²⁾

이에 비하여 고고학적 해석은 달리 나타난다. 동래 복천동 고분의 출토 유물이 가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기원 4세기 후반~5세기경까지는 이 지역이 가야문화권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

20) 그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빙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종욱씨도 거칠산국의 위치를 울산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李鐘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일조각, 1982, p.21.

21) 『三國史記』44, 列傳 4 異斯夫전에 ‘異斯夫는 성이 金씨이다. 지증왕 때에 沿邊官이 되어 居道의 권모를 본받아 마속놀이로써 가야국을 속여 취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22) 朱甫墩, 「4~5世紀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p. 487.

며, 신라계 유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²³⁾ 그리하여 독로국이 쇠퇴하는 시기를 김해의 가야국과 일정한 대응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신라가 김해의 가야를 압도하는 시기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에서 찾는데, 고구려 광개토왕 영락 10년(400)에 고구려군 5만으로 남정하여 백제와 가야를 압박함에, 가야는 크게 타격을 입고, 김해의 구야국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신라는 이에 힘입어 남진책을 계속 추진하여, 눌지왕(417~457) 때에는 양산지방을 장악하고 여기에 朴提上을 두므로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그러한 와중에서 독로국은 점차 신라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⁴⁾

부산이 신라에 편입된 시기를 둘러싸고 연구자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병합시기를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남진하는 신라의 팽창세력이 울산을 점거하고 이어서 부산을 세력권 속에 포함시켜 가는 과정은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의 거둔된 공세에 밀려 부산의 독로국(거칠산국)과 울산의 우시산국은 신라의 지배판도에 포함되어 갔으며, 이 두 소국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거칠산국의 속현에 편제된 대중현이나 감화량곡현도 그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는 동해의 해안도로를 통해 동남해의 해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점을 장악했으며, 이후 연속적인 공격과 배후세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금관가야를 고립시켜, 드디어 법흥왕 19년(532) 때에 금관가야의 투항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는 그들의 세력권 내로 들어온 피복속지역에 대하여 즉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직접 지배를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4~5세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한마디로 간접지배라 일컫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납제를 손꼽고 있다. 사로국에 의해 복속된 지역

23) 申敬澈, 「釜山市 福泉洞古墳群遺蹟 1次發掘調査 概要와 意義」 『釜山市立博物館年報』 3, 1981.

24) 宣石悅, 「앞의 논문」 2002. p.47.

은 공납이란 복속의례를 매개로 하여 어느 정도 자치를 보장받았다는 것이다.²⁵⁾ 그러나 이에 대하여 주보돈은 복속되는 형식이 다양하고 피복속 지역의 정치적·사회경제적인 형편이 한결같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역별로 지배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²⁶⁾ 그 유형은 첫째, 의례적인 공납 등의 납부로 臣屬을 표하는 대신 거의 완전한 자치를 허용 받는 경우, 둘째, 피복속지역의 자치는 허용하되 그 지역의 유력세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편을 거친 경우, 셋째, 피복속지역의 유력세력을 중앙으로 이주시켜 귀족화시키고, 원래의 지역을 재편하여 食邑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넷째, 피복속지 가운데 중요한 군사요충지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軍官을 상주시킨 경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²⁷⁾ 부산지방은 신라의 경주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상 공납을 납부하는 대신 상당한 정도의 자치를 허용 받는 정도의 관계였을 것이다.

신라는 4~5세기에 이르러 진한지역의 제국가들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신라 사신 衛頭를 前秦(351~394)에 파견하여 국가의 비약적 발전을 중국에까지 알렸고, 왕호도 이사금에서 麻立干으로 고쳤다. 麻立干的 麻立은 上席·主席·首席의 의미이므로,²⁸⁾ 마립간이란 왕경의干이면서 동시에 지방의干에 대한 우두머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마립간이라는 왕호의 사용은 경주에 자리잡고 있던 사로국의 왕이 아니라 신라국가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국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대왕적 의미의 왕이었다고 하겠다.

이후 신라 왕실은 김씨의 왕위세습을 관철시키고 중앙집권적 통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神宮에의

25) 韓祐,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상)」 『歷史學報』 12, 1960 p.101.

26) 朱甫墩, 「麻立干時代의 地方統治와 村落」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p. 42.

27) 朱甫墩, 『위의 책』 pp. 43~49.

28) 李丙燾, 「古代 南堂考」 『韓國古代史研究』 1976, p. 626.

제사, 南堂의 설치와 왕경 6부의 성립을 통한 중앙지배체제의 확립 등을 추진하고, 牛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며, 저수지 축조, 官道수리 등에 민을 동원하여 전국적 통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였다.²⁹⁾ 또한 새로 편입된 요새지에 축성을 추진함으로써 제소국을 해체하고 州郡으로 편제하는 과정을 밟기도 하는데³⁰⁾ 거칠산국에 접경한 부산의 大飡縣에 大飡山城을 축성한 것도³¹⁾ 신라의 영역지배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제도는 州郡제 성립을 통하여 일단락 된다. 신라의 주군제는 탈해왕 때에 州郡에 박씨귀족을 파견하여 州主·郡主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이지만³²⁾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智證王 6년(505)의 ‘王親定國內州郡縣’하고, 悉直州에 異斯夫를 군주로 파견한 기록을³³⁾ 그 시초로 보고 있다.³⁴⁾ 또 금석문 자료로서 법흥왕 11년(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蔚珍 鳳坪碑에 悉支軍主의 존재가 확인된다. 신라는 悉直州를 시작으로 沙伐州, 新州, 比斯伐州(하주) 比列忽州 등을 중치하였으며 작전상의 필요에 따라 주치를 이동하였는데, 그 가운데 부산과 가장 가까운 주치는 진흥왕 16년(555) 比斯伐(현 창녕)에 下州停을 설치한 것이다.³⁵⁾ 금관가야를 통합한 이후에 경남 일원

29) 宣石悅, 「新羅國家의 支配構造」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2001, pp.192~199.

30) 全德在, 「新羅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서울대 국사학과, 1990. p.49.

31) 『三國史記』 1, 祗摩王 10년 2월조에 ‘築大飡山城’이란 기록이 보인다.

32) 『三國史記』 1, 脫解王 11년조.

33) 『三國史記』 4, 智證王 6년 4월조.

34) 徐穀植, 「신라 「中古」期 六部の 部役動員과 地方支配」 『韓國史論』 23, 1990, p.139에서 신라가 판도를 명실공히 영역으로 지배하게 된 것은 「신라」를 국호로 삼은 지증왕대의 일일 것이라고 한다.

35) 李仁哲은 「新羅中古期の 地方統治體制」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pp.164~166에서 州에는 협의의 주와 광의의 주가 있는데, 上州는 지금의 경북 전역을 차지했던 것 같고, 下州는 지금의 경남일원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녕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여기에 幢停부대를 배치한 것이라 하겠다.³⁶⁾

그러나 郡에 대한 기록은 524년의 봉평비에는 보이지 않고 거점으로서의 행정촌만이 존재하고 있다. 금석문에 나타나는 郡에 대한 기록은 551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明活山城作城碑에 郡中上人이 있고, 561년의 창녕비에도 군이 보이고 있다. 진평왕 13년(591)에 세운 南山新城碑 제 1·2비에 郡上村主, 郡中上人 등의 기록도 있다. 문헌자료와 금석문 자료에 의거하면, 郡은 505년에서 551년 사이에 설치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산지방도 신라에 복속된 이후에 곧바로 신라의 군으로 편제되었다기 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6세기 중엽에서야 신라의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어 지방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거칠산군은 두 개의 속현을 가지고 있었다. 大鰐縣과 甲火良谷縣이 그것인데, 그러나 현에 대한 기록은 중고기 금석문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지증왕 4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冷水碑에 珍而麻村이라는 村名과 촌주 2명의 이름이 보이며, 鳳坪碑에 阿大兮村을 비롯한 3곳의 촌명과 悉支軍主가 나온다. 이를 보면, 신라는 중고기에 州와 郡은 설치했지만, 縣은 아직 설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縣에 해당하는 말단 행정조직은 行政村 또는 城을 설정하고, 주에는 軍主, 군에는 撞主, 촌에는 道使와 같은 군사적 성격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지배를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³⁸⁾ 그렇다면 대증현과 감화량곡현도 현으로 편제되기 이전에는 城 또는 행정촌 상태로 거칠산군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36) 姜鳳龍, 「新羅「中古」期「州」制의 形成과 運營」『韓國史論』16, 1987, p. 88에서 比斯伐停을 창녕에 설치하여 대가야방면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으로 보았다.

37) 木村誠, 「新羅郡縣制의 確立過程と村主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 pp.11~12에서 신라 중고기의 지방제를 州郡制, 중대의 지방제를 郡縣制라 구별하였다.

38) 朱甫墩, 『앞의 책』 p.247.

농민이 거주하는 기본단위는 촌락이었다. 촌락은 지방행정기구의 말단에 위치하여 재지세력가인 촌주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신라의 촌주는 지방에 토착하는 지방인으로서 王京人과는 구별되는 신분체제 속에 넣어 있었으며, 外位 관등을 받았고,³⁹⁾ 外村主, 郡上村主, 郡中村主 등 몇 개의 등급 또는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촌에는 村司, 군에는 郡司를 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촌락지배를 관철하고 있었다.⁴⁰⁾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국가의 주요한 수취대상이었다. 국가는 이러한 자영농민들을 직접 과약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에게 조세 공부와 요역을 부과했다.

중앙정부는 이들 농민들의 안집에 힘을 기울이고 정치와 민정을 시찰하며, 새로이 정복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巡幸길에 나서기도 하였다.⁴¹⁾ 신라의 국왕이 직접 부산에까지 순행을 하였다는 사료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의 影島에 태종대가 있고, 여기에서 태종무열왕이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가 오래 구전되어 지명으로 정착된 것을 보면,⁴²⁾ 무열왕의 순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⁴³⁾ 삼국통일전쟁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앞두고 지방을 순행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민의 역량을 집결함으로써 통일전쟁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이 시기의 부산지역 순행이었다고 할 것이다.

39) 하일식,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 『學林』 12·13, 1991.

40) 李鐘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1974.

41) 金瑛河, 「新羅時代 巡狩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42) 『東萊府誌』 故地 太宗臺조에 ‘諺傳 新羅太宗射侯之處 故名以此云’ 이라 하고 있다.

43) 신라에 편입된 이후의 부산은 신라국왕과 귀족들에게는 휴양지로서도 각광을 받았다. 울산의 王山洞은 신라 국왕이 동래 온천에 내왕하면서 쉬던 장소라는 『慶尙道邑誌』의 기록, 신라 신문왕 때의 재상 忠元公이 동래온천에서 목욕하고 돌아가다 상처 입은 꿩을 측은히 여기는 매를 보고 靈鷲寺를 건립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등이 이를 말해준다.

Ⅲ. 통일신라시대 부산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신라는 통일 이후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일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전제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백제 및 고구려 고지에 대한 국가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신문왕은 중앙의 진골귀족세력들을 탄압하고 전제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대 개혁정치를 단행하였으며,⁴⁴⁾ 그 5년(685)에 지방제도를 재정비하여 신라지역에 3주, 고구려 지역에 3주, 백제 지역에 3주를 두어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과 117개의 군, 293현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여 신라의 국가체제 속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유민들을 신라민으로 회유포섭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신라지역의 기존의 재지세력이 가진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⁴⁵⁾

이렇게 설치된 9주에는 州 장관 都督을 두었다. 都督은 통일 이전의 軍主에서 그 명칭을 바꾼 것인데,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군정적 성격이 감소하고 행정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주의 도독은 중앙에서 파견된 州助, 長史 각각 1명씩과 함께⁴⁶⁾ 州司에서 근무하며, 주의 행정권·역역의 징발권·경찰권 혹은 병권·사법권·징세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대신에 정부가 파견한 外司正 2인에 의해 감찰을 받기도 하였다. 도독은 주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보고하여야 했고, 특별한 물건은 국왕에게 진상하여야 했다.⁴⁷⁾ 州에는 그곳에 토착하는 州吏가 있어 상호 협조적으

44) 金壽泰, 「專制王權의 確立과 金欽突亂」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p.26.

45) 朱甫墩, 「統一期 新羅地方統治體制的 整備와 村落構造의 變化」 『大邱史學』 37, 1989, p. 35.

46) 『三國史記』 40, 雜志 職官下 外官조.

47) 李仁哲, 「新羅 統一期의 地方統治體制」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p.205.

로 주의 행정 실무를 처리하였다.⁴⁸⁾

郡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단위로서의 郡은 이미 중고기에 설치되어 있었다. 종래에는 道使 또는 邏頭가 郡政을 담당하였으나 통일 이후 그 명칭이 太守로 일원화되고 그 성격도 바뀌어졌다. 종전의 郡은 城을 중심으로 하는 감찰구역적 성격이 강하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능이 사라지고 점차 독립행정 영역을 가지는 군현으로 바뀌어 정착되어 갔다.⁴⁹⁾ 군은 현보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부산지방의 거칠산군은 大飢縣과 甲火良谷縣의 두 영현을 거느린 비교적 큰 규모의 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에는 郡司가 있고, 군태수 1인과 外司正 1인이 있고⁵⁰⁾, 郡吏들과 더불어 군정을 운영하였다.

縣의 설치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현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설과⁵¹⁾, 통일 이후 9주의 지방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현이 설치되었다는 설이⁵²⁾ 있어,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은 州郡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설치되었으며, 종전의 城과 村이 현으로 편성됨으로써 군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현에는 少守 또는 縣令이 파견되었는데, 전국에 파견된 소수는 85인, 현령은 201인이었다. 縣政의 담당자를 현령과 소수로 구분한 것은 현의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라 한다.⁵³⁾ 군현의 태수 · 현령 · 소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당군단을 동원하여 도적떼를 소탕하기도 하고, 축성이나 축제공사를 하기도 하였다.⁵⁴⁾ 또 州

48) 李仁哲, 「위의 논문」 p.201.

49) 李銖勳, 「新羅中古期 郡의 形態와 城(村)」 『古代研究』 1, 1988. p. 17.

50) 『三國史記』 7, 文武王 13년조.

51) 李仁哲은 「앞의 논문」 p.207에서 삼국통일 이전인 진평왕 33년(611)에 현의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영토에 현이 먼저 설치되고 삼국통일 이후에 백제 · 고구려 영토였던 지역에 현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52) 李文基는 「統一新羅의 地方官制研究」 『國史館論叢』 1990 p. 15에서 현의 설치 시점을 신문왕 5년의 9주 성립시기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

53) 李仁哲, 「앞의 논문」 p. 214.

54) 李仁哲, 「앞의 논문」 p. 213.

縣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⁵⁵⁾ 군현에서 조세나 공물을 거두어 보관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군태수와 현령은 경찰권·요역의 징발권·징세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郡과 縣은 모두 자연촌을 기초단위로 하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주민의 생활 공간이라는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郡縣은 州를 중심으로 영속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郡은 그 하부에 다시 郡이나 縣을 영속하였으므로 광역의 행정군사지역이란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의 거칠산군은 자연촌을 가진 하나의 거점인 동시에 良州에 소속되어 상하관계를 이루었고, 또 甲火良谷과 大飡縣이란 두개의 현을 영속한 광역의 행정구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비된 州郡縣제는 景德王 16년(757)에 전면적인 재정비과정을 거쳤으며, 州와 郡縣의 명칭을 한자식으로 개명하고, 9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할군현 수를 조정하였다. 이러한 군현편제시에 양주 소속의 거칠산군은 東萊郡으로, 감화랑곡현은 機長縣으로, 대증현은 東平縣으로 개명되었다.

경덕왕은 신라문화의 절정기를 이끌어간 전제군주의 한 사람으로서, 신라의 정치구조를 전통적인 것에서 중국식 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 개편을 단행하였다. 개칭된 관부의 수는 사료상 확인되는 것만 51곳에 달하며, 관직 수는 77개에 이른다고 한다.⁵⁶⁾ 그 외형적 모습은 중앙의 관직과 지방의 군현명칭을 거의 대부분 한자식 용어로 개칭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명호의 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정연한 중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는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이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왕의 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惠恭王 12년

55) 『三國遺事』 3, 五臺山五萬眞身조에 경덕왕이 眞如院을 고쳐세울 때, 州縣으로부터 倉租 일백석과 淨油 1석을 공급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56) 李基白, 「新羅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1958;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p.244.

57) 李基白, 「위의 논문」 pp.238~247.

(776)에 경덕왕이 시행했던 漢化政策을 폐지하고 옛 제도를 복구하는 시책을 쓰게 된 것은 귀족들의 반전제주의적 움직임이 거세어져, 이들의 불만과 반발을 무마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 한다.⁵⁸⁾ 혜공왕의 복고정책으로 중앙관직에서의 직명은 옛 명칭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지만,⁵⁹⁾ 지방명칭까지도 다 함께 복고되었는지는 의문이다.⁶⁰⁾ 『삼국사기』 지리지의 개정지명은 복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고되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한자식 지명을 써 온 것으로 본다.⁶¹⁾

경덕왕 이후에도 지방제도는 개편을 거쳤다. 哀莊王 9년(808)에 ‘發使十二道 分定諸郡邑疆境’⁶²⁾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고, 鎭의 중치가 있으며, 하대에는 府에 대한 기록도 보이고 있다.⁶³⁾ 그러나 부산지방의 군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주민 생활상을 알기 위해서는 1930년대에 일본 東大寺에서 발견된 西原京(淸州)부근 4개 마을의 村落 民政文書가 참고된다. 여기에는 촌락의 民戶, 남녀별 연령별 인구수, 종목별 보유 토지결수, 가축 마리수, 집 주위에 심어진 桑木, 果樹까지를 3년마다 한번씩 조사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연구자에 따라 자료의 작성시기⁶⁴⁾, 촌락의 성격⁶⁵⁾ 등에 대한 이해가 통

58) 李基白, 「위의 논문」 p.247.

59) 경덕왕이 개칭한 51개 관부 중 49개, 77관직 중 71개의 복고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관부와 관직도 복고되었을 것이라 한다. 李基白, 「위의 논문」 p.244.

60) 李文基도 「統一新羅의 地方官制研究」 『國史館論叢』 1990 p.12에서 지명 일부가 복고된 사실을 찾아내고 있다.

61) 李文基, 「앞의 논문」 p. 13에서 개정된 지명과 원래의 지명이 혼효되어 사용되다가, 9세기 중엽부터는 개정된 지명사용이 일반화되어 간 것으로 보았다.

62) 『三國史記』 10, 哀莊王 9년 2월조.

63) 배종도, 「新羅下代の 地方制度 개편에 대한 고찰」 『학림』 11, 1989.

64) 이 자료의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경덕왕 16년(755) 을미년으로 보는 설(旗田巍, 「新羅의 村落-正創院 新羅文書研究」 『歷史學研究』 226, 1958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1972, p.423.)과, 憲德王 7년(815)설(武田幸男, 「新羅의 村落支配-正創院所藏文書의 追記おめぐつて-」 『朝鮮學報』 81, 1977, p.244.), 憲康王 1년(875)설(金鐘瑯, 「日本 正創院 所藏 新羅帳籍의 作成年度와 그 歷史的 背景」 『아시아 文化』 5, 1989, p.38) 등이 있다.

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농민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한 과세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당시 농민이 국가에 대하여 저야할 세부담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호구와 인구수가 철저히 파악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을 국가기관에서 수시로 동원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이고, 실제로 산성이나 수리시설의 설치 혹은 보수 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지휘아래 지방의 촌주 같은 인물의 지도를 받는 지역주민의 동원사례가 확인된다.⁶⁵⁾ 또 가축이나 과일나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조사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국가에서 현물로 받아들일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또 토지의 종목에 있어서도 烟受有畓, 官謨畓, 內視令畓과 같이 소유주체를 밝히는 토지 종목과, 麻田과 같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등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농민의 경작노동이 자신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에 의하여 지정된 일정 농지를 강제로 경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인시키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조세의 명목으로 납부하고 이를 수도인 경주로 수송하여 왕실과 귀족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西原京 부근의 마을에만 한정되어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직접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더라도 전국의

65) 장적에 나타난 촌락이 농민이 거주하는 일반 촌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한편(旗田巍, 「新羅의 村落-正創院 新羅文書研究」 『歷史學研究』 226, 1958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1972.), 이를 왕실의 식읍 내지 왕실 직속 촌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基興, 「新羅「村落文書」에 대한 新考察」 『韓國史研究』 64, 1989. 李泰鎮, 「新羅村落文書の 牛馬」 『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の展開와 그 文化』 1990.

66) 李基白, 「永川 靑堤碑 貞元修治記의 考察」 『考古美術』 102, 1969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p.295.

李鍾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1974. p. 16.

실상이 비슷하였을 것이며, 부산지방의 주민들도 이러한 수취체계에 편제되어 무거운 부담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에서 부담하지 않는 무거운 공물부담을 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류·해조류 및 소금의 생산과 운반이 아니었을까 한다. 조선 세종때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동래와 동래의 속현인 동평현·기장현의 공물에 벌꿀·해조류·건어물·어패류·약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물과 관련하여 부산에 있었던 鄉과 部曲이 주목된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지리지 서문에서 ‘이른바 鄉·部曲 등 雜所는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록에서 누락시켰으나,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의하면 동래현에는 4개의 部曲과 하나의 鄉이 기록되어 있다. 古知道部曲, 調井部曲, 兄邊部曲, 富山部曲과 生川鄉이 그것이다. 언제부터 이들 향·부곡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아래의 사료가 참고된다.

지금 고찰하여 보건대 신라가 州郡을 建置할 때에 그 田丁이나 戶口가 적어, 縣이 될만하지 못한 곳에는 혹 鄉을 두고 혹 部曲을 설치하여 소재 읍에 속하게 하였다.

(『東國輿地勝覽』 7, 驪州牧 古跡 登紳莊條)

신라시대에 田丁이나 戶口가 적어 현으로 만들 수 없는 곳에 향과 부곡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과 부곡의 생성과정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前朝(高麗)에서는 5도 양계의 驛子·津尺·部曲人은 모두 태조에게 逆命했던 자들을 賤役に 종사케 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 1, 太祖 원년 8월 기사조)

고려 초의 상황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긴 하지만, 부곡인은 천역에 종사하는 역명자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향·부곡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앞의 사료와 상반되는 개념이며, 어느 사료에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부곡과 향은 천민집단이라는 설과⁶⁷⁾ 양인이라는 설로 대별된다.⁶⁸⁾ 또 향과 부곡의 생성시점에 대해서도 신라 중고기 소국병합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설과⁶⁹⁾, 통일기를 전후한 시점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설이 있다.⁷⁰⁾

이들 부산의 부곡명과 일치하는 지명이 『삼국사기』에 보인다. 兄邊이 그곳인데 신라 때부터 남쪽의 海神에게 제사하는 장소이고⁷¹⁾ 거칠산군에 있다는 것이다.⁷²⁾ 그렇다면 형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가적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특정한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부산에는 신라시대부터 유명한 목마장이 있었다. 신라 성덕왕이 김유신의 손자인 大阿湊 允中에게 절영도의 명마 한 필을 하사한 사례가 보인다.⁷³⁾ 『唐書』新羅傳에 의하면 ‘재상가에는 祿이 끊이지 않고 奴僮이 3,000인이며, … 섬에는 가축을 방목하면서 잡을 때

67) 白南雲, 「部曲制의 歷史的 意義」 『朝鮮封建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金哲堧, 「신라의 촌락과 농민생활」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6.

68) 李佑成, 「李朝時代 密陽古買部曲에 대하여-部曲制의 發生 形成에 관한 一試論-」, 『辰檀學報』 55.

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69) 朴宗基, 「新羅時代 鄉·部曲의 性格에 관한 試論」 『韓國學論叢』 10, 1988. p.62.

70) 木村誠, 「新羅時代の郷」 『歷史評論』 1983. pp. 105~106.

71)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晨檀學報』 33, 1972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94. 예의하면, 신라의 국가적 제사인 中祀는 五岳·四鎮·四海·四瀆·기타에 대한 제사인데, 반도 통일 이후에 성립된 호국신앙의 표현물로 보고 있다.

72) 『三國史記』 雜志1, 祭祀조에 ‘中祀……東阿等邊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 北非禮山’이라 하였고, 『東國輿地勝覽』 東萊郡 古跡조에는 兄邊部曲에 대한 세주에서 ‘在縣南海岸 新羅祀南海神于此’라 하여 이미 신라시대부터 兄邊에서 남해바다 신에게 제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73) 『三國史記』 43, 列傳 3, 金庾信 下.

는 활로 쏜다'고 하였는데, 부산 주변의 섬들이 명마가 생산되는 방목목장이었던 것이다.⁷⁴⁾ 부산의 古知道部曲이 『世宗實錄地理志』에는 古智島陞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곳도 한 때는 방목장이었을 것이며, 여기에 거주했던 부곡민들은 목장관리에 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부산은 또한 소금생산지로서 중요한 장소였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동래와 동래의 속현인 동평현·기장현의 鹽盆의 수가 각각 25·40·11 개소로서 도합 76개소에 달한다. 61개의 염분은 貢鹽盆이고 12개의 염분은 軍須鹽盆이며, 단 3곳만이 私鹽盆이다. 거의 전 염분이 공납용 내지는 군수에 충당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금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곳은 부산포였다.⁷⁵⁾ 이 곳은 고려시대까지 部曲으로 편제된 지역이었으므로, 이곳의 주민은 소금생산을 위한 공역에 강제 투입되어 무거운 노동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산은 연해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南海神에의 제사, 목마장 관리, 소금의 생산 등과 같은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산이 부곡으로 명명된 지역에서 주로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부곡민은 신분상 양인이라 할지라도 수취체계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役을 부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⁷⁶⁾ 신라시대라고 하여 그 처지가 달랐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부산의 부곡 가운데 3곳에서 특정 役을 부담했던 사실이 확인됨으로, 그러한 役이 부과된 시점을 신라시대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조세의 명목으

74) 신라시대에는 해도 목장보다는 내륙목장이 더 중요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李泰鎭은 「新羅村落文書의 牛馬」, 『앞의 책』 1990에서 海島목장의 비중은 고려 후기부터 점차 높아져서 조선시대에 보편화되었을 것이라 한다.

75) 『慶尙道地理志』 동평현 富山浦의 소금생산량은 貢鹽盆 30, 軍須鹽盆 7, 私鹽盆이 2곳 있어 부산에서 생산되는 소금량의 2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다.

76) 朴宗基, 『위의 책』 p. 148.

로 국가에 납부하고 이를 경주로 수송하여 왕실과 귀족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IV. 신라말 호족세력의 성장과 부산의 동향

8세기 신라 해공왕이 암살 당한 이후, 신라의 왕위는 내물왕계를 표방하는 원성왕 후손들에 의하여 이어지게 된다. 이후 하대 약 150년 사이에 20여명의 왕이 즉위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왕이 내란에 희생되었다. 왕위는 왕족간의 정치적 실력과 무장력의 우열에 따라 결정되기에 이르렀다.⁷⁷⁾ 귀족들은 戰功으로 포상받은 광대한 食邑과, 관직으로 받은 祿邑 등 토지를 사유화하여 田莊을 확대하고,⁷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奴僮이나 流民을 모아 무장시켜 사병을 양성하고,⁷⁹⁾ 무력으로 왕위를 다투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사회는 지방사회대로 중앙권력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세력가가 성장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사회는 농업의 발달과 변경지방에 대한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⁸⁰⁾ 지방에 독자적 세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의 진골 귀족들이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자기항쟁을 계속하는 동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세력이 성장할 계기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 출신배경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해상세력, 춘주

77)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pp.155~167.

78) 金哲堧, 「新羅 貴族勢力의 基盤」 『人文科學』 7, 1962 :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81. p.241.

79) 李基白, 「新羅 私兵考」 『歷史學報』 9, 1957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94, 일조각, p.259.

80) 魏恩淑, 「나팔여초 농업생산력발전과 그 주도세력」 『釜大史學』 9, 1985. p.35.

출신 호족, 낙향귀족, 軍鎭세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일반 군현에서 성장한 호족은 그 대부분이 촌주출신이었을 것이다. 촌주는 군현의 행정체계 밑에서 촌락민을 통제하는 구실을 담당해 온 재지세력의 대표자였다. 이들은 향촌의 토호로서, 촌락문서의 작성, 조세수취, 역역동원, 촌락방위 등 村政 전체를 담당하는 실질적 지배자였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村主位田畓을 지급 받고, 촌민보다 훨씬 많은 노비와 牛馬를 소유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통하여 촌주는 지방사회에서 세력을 확대시켜 마침내 정치적, 군사적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 호족들은 진성여왕 3년 이후 납세를 거부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자신들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성을 쌓고 城主라 칭하고, 주민들을 무장시켜 將軍이라 자칭하면서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⁸¹⁾ 그리고 민중을 통치하기 위해 독자적 행정조직을 갖추었는데, 당시 중앙관제와 유사한 격식 높은 관직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을 관반이라고 칭하였다.⁸²⁾ 또한 촌주계층은 지방학교를 설립하여 그 운영에 참여함으로써⁸³⁾ 지방문화를 선도하는 계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나말여초의 시기동안 신라 수도 경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는 반 독립적으로 세력을 펼치고 있던 지방호족들이 산재하여 있었다.

이 무렵 부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 호족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부산이 당시에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 향배 또한 어떠한가를 간접적으로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경남일대의 지방세력으로서 그 활동상을 찾아볼 수 있는 예도 많지는 않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 추측이 가능

81) 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韓國史研究』 39, 1982. p. 59.

82)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1979. p. 132.

83)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 『韓國史研究』 7, 1972. p. 127.

한 부분도 있고, 또 부산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호족세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산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호족의 동태를 알 수 있는 곳으로는 김해가 있다. 김해지방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기 이전부터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金官加耶의 본거지였다. 法興王 19년(532)에 신라에 병합되어, 金官郡이 되었다가 文武王 때에 金官小京으로 승격되고, 景德王 때에 그 이름을 고쳐 김해라 하였다.

小京에 대하여는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 문화의 중심지하는 설⁸⁴⁾, 가야. 백제. 고구려등 북쪽지 통치의 거점이라는 설⁸⁵⁾, 피정복지역의 지배층을 연고지로부터 유리시켜 집단거주지로 소경을 설치하고 이들을 회유 감독하였다는 설⁸⁶⁾ 등이 있다. 그러나 금관소경만은 가야계 왕족의 외손인 신라 文武王(661~681)이 금관가야 왕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에서 그 고지에 금관소경을 설치하여 주고(680) 아울러 그 시조에 대한 廟享을 계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었을 것이라 한다.⁸⁷⁾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일부는 金庾信처럼 신라 왕족인 진골신분에 편성되어 왕경인 경주로 이주하고 신라사회에 동화되어 갔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 본거지를 떠나지 않고 토착하여 수로왕의 제사를 통해 혈족의식을 다져갔을 것이다.

수도인 경주로 이동하였던 김유신 직계손의 경우, 삼국통일 이후 국가제도의 정비와 전제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귀족들이 도태되는 과정에서 그들도 점차 밀려나 반역죄로 처형되거나⁸⁸⁾,

84) 藤田亮策, 「新羅九州五京考」 『朝鮮學報』 5, 1953, p.108.

85) 韓治昞,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其人制起源說에 대한檢討에 붙여서-」 『歷史學報』 12, 13, 1960, p. 114.

86) 林炳泰,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합집, p.108.

87)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서울대, 1978, p.411.

88)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1958 : 『앞의 책』 p. 249.

6두품으로 족강되기도 하였다.⁸⁹⁾ 그러나 김해지방에는 신라 하대까지 수로왕의 제사가 그 후손에 의하여 받들어지고 있었다.

신라 말기에 忠至 雜干이란 자가 있었다. 金官城을 쳐서 뺏고 성주장관이 되자 이에 英規 阿刊이란 자가 장군의 위세를 빌어 묘의 제향을 빼앗아 제사를 참란히 행하더니 단오날에 사당에 제 지내던 중, 사당의 대들보가 까닭 없이 부러져서 영규는 치어 죽었다. …장군은 너무 두려워서 즉시 수로왕의 직계손 圭林을 불러 말했다. “어제도 불상사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듭 일어나는가? 이는 정녕 묘의 위령이 내가 화상을 그려 공양함이 불손하다고 크게 노하신 것 같다. …그대는 왕의 직계손이니 그 전대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합당하겠다” 규림은 선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다가 나이 88세에 죽었다. 그 아들 間元卿이 아버지를 이어 제사를 받들었다. (『三國遺事』 2, 駕洛國記)

이상의 내용에서, 수로왕의 제사가 신라말 忠至 장군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가야계 후손에 의하여 받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지 장군은 신라 효공왕 11년(907) 당시에 김해지방의 정권·군권·재정권을 망라한 최고지배자인 蘇忠子和 동일인일 것이라 한다.⁹⁰⁾ 그리고 소충자 이전에 김해지방에는 知金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이라는 직명을 가진 金仁匡이 있었다.⁹¹⁾ 그가 활약했던 시기는 소충자에 앞서는 진성여왕 말년경 또는 효공왕 초년경에 해당되며, 김해지방 최초의 호족세력이었다고 한다. 아마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이 지방의 실력자로 부상된 듯하다.

그런데 소충자를 이어서 김해지방의 실력자로 등장한 이는 蘇律熙였다. 소율희는 소충자의 아우로서 신라 효공왕 11년(907)에 領

89) 申滢植, 「宿衛學生考」 『歷史教育』 11·12합집, 1969 ;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p. 439.

90) 崔柄憲, 「앞의 논문」 p.406.

91) 『朝鮮金石總覽』 上,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軍이란 지위에 있었으나, 이보다 4년이 지난 911년 예는 金海府知軍事로서 실질적 통치권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에 의하면, 知進禮城諸軍事 金律熙라 하여 소씨에서 김씨로 개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새고 대두하는 호족세력이 새로이 성을 갖게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하고,⁹²⁾ 또는 신라 왕실이 내린 賜姓이라고 하기도 한다.⁹³⁾ 그러나 앞서 제시한 『가락국기』의 사료와 연결하여 보면, 김씨 성을 갖게된 이유를 가야계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신 김씨로의 개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지역의 토착적 혈연집단으로서의 가야계 후손이, 새로이 등장한 소출자 등 현실적 실력자에게 강한 반발을 나타내었고, 특히 수로왕의 제사를 둘러싸고 마찰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지역 통치권자인 소율희가 김씨로 改姓하여 수로왕의 후손 자격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지역 실권자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중앙지배력이 약화된 틈에 김해지방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지방호족세력은 가야계 왕실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배력을 상실하고 다른 정치 세력에게 지위를 상실당했다는 것은 호족 상호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호족의 난립시대 혹은 후삼국 시대의 지방사회는 크고 작은 세력간의 경쟁무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해지방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해지역이 후삼국 시대에 어느 나라에 소속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두가지 이설이 있다. 그 하나는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신라에 충성하고 있다가 후백제의 침공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고⁹⁴⁾ 또 하나는 이 곳이 고려의 세력권 속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설이다.⁹⁵⁾

92) 崔柄憲, 「앞의 논문」 p.407.

93) 全基雄,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 4, 1987, p.20.

94) 崔柄憲, 「앞의 논문」 pp. 426~427.

95) 黃善榮, 「高麗·後百濟의 東南道 爭奪」 『高麗初期 王權研究』 동아대학교 출판부, 1988, pp. 58~66.

전자는 종래의 이해를 반영한 것인데, 나말여초에 세워진 禪師들의 비문을 보건대 이들이 경주와 김해를 오가고 있으며, 신라 경명왕 7년(923)에 김해지방에서 鳳林山派를 개창한 審希가 入寂하자, 왕이 사신을 보내어 賻資를 보내고 그의 공적을 기린 탑비를 세워주는 등의 행적에서 김해지역 호족세력의 친신라적 성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심희를 제외한 다른 승려들, 곧 소율희의 지원을 받고 있던 나말의 명승 利嚴과 忠湛 등은 김해지방을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전쟁의 위협을 손꼽고 있으며, 경애왕 4년(927) 견훤의 경주 침입은 김해지방의 독자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⁶⁾

그러나 이와는 달리, 김해지방은 고려의 영역으로 후백제에 대한 최일선 전진기지가 되는 곳으로 보기도 한다.⁹⁷⁾ 위의 두 설 가운데 어느 설을 택하든 간에 김해지방이 그 곳 호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삼국의 쟁패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하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경남 일대에서 성장한 호족 가운데 그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는 康州⁹⁸⁾가 있다. 최초의 기록은 康州將軍 閔雄에 관한 것이다.

강주장군 閔雄이 그 아들 一康을 보내어 인질로 삼게 함에, 일강에게 阿榮의 벼슬을 주고 卿 行訓의 누이로써 처를 삼게하며, 郎中 春讓을 강주에 보내여 귀부함을 위로하였다.

(『高麗史』 1, 太祖 3년 1월조)

당시는 고려 태조가 궁예정권을 타도하고 고려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고, 또 진주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교

96) 崔柄憲, 「앞의 논문」 pp. 426~427.

97) 黃善榮, 「앞의 논문」 pp. 58~66.

98) 진주는 신라 경덕왕때 부터 고려 성종에 이르기까지 康州로 불려지고 있었다.

통상의 요충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강주의 지방호족인 윤웅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게 된 것이다. 태조는 이를 크게 기뻐하였던 것은 상기 사료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태조 10년(927)에는 앞서 귀부한 윤웅 대신에 權知康州事 王逢規 후당의 명종에 의하여 懷化大將軍에 봉해지고, 또 林彦이란 사신을 보내어 후당에 조공하는 사실이 나타난다.⁹⁹⁾ 언제 윤웅 대신에 왕봉규가 이 지역의 최고 지배자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강주지방의 지배세력이 교체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왕봉규가 처음으로 기록상에 나타난 시기는 신라 景明王 8년(924)인으로, 강주장군 윤웅이 고려태조에게 귀의한지 3년 후에, 泉州節度使란 관직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보다 3년 후인 경애왕 4년(927)에는 權知康州使란 직명을 띠고 있었다. 泉州라는 지명은 宜寧의 古號라 하므로,¹⁰⁰⁾ 왕봉규는 처음에 의령지방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급속히 그 세력을 확대하고 진주방면까지 진출하였을 것이다. 그 곳을 지배하고 있던 윤웅을 물리치고 서부 경남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 대중국 외교를 독자적으로 펼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의 왕봉규의 행적에 관하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지방세력의 동향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당시의 지방세력은 자신의 근거지를 배경으로 기반을 다지고, 다음으로 주변세력과 대결하여 교체세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으로 대중국 외교활동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김해와 진주지방 호족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후삼국 시대에 지방에서 두각을 나타낸 호족들은 크고 작은 실력자간의 상호 항쟁

99) 『冊府元龜』 972, 後唐 明宗 天成 2년 3월, 4월조.

100) 金庠基, 「羅末地方豪族의 對中交通-특히 王逢規를 중심으로-」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1960 :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78. p. 436.

의 결과 살아 남게된 인물들이며, 이들은 처음에는 小지역을 관할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보다 확대된 영역의 지배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강주의 운용처럼 스스로 항배를 결정하고 후삼국 가운데 한 나라에 귀의하는 예도 있지만, 일부는 고려와 후백제의 공방전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잃고, 후삼국 영역 판도에 점차 흡수되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상은 호족들 간의 상호 항쟁과 세력교체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지만, 호족의 활동 내용은 알 수 없더라도 호족이 존재했던 사실만을 알 수 있는 곳도 있다. 양주의 金忍訓과 울산의 朴允雄이 그들이다.

良州(양산)는 신라의 9州 가운데 하나로 동래군을 그 관할하에 두고 있었다. 여기에 나말의 호족이 등장한다.

良州帥 金忍訓이 위급함을 고하니, 궁예가 태조로 하여금 가서 구하게 하였다. 돌아옴에 이르러 궁예가 변사를 붙으니 태조가 변경을 안정시키고, 경계를 개척하는 방책을 진술하자 좌우가 다 주목하였다. (『高麗史』 1, 太祖世家 天復 3년조)

양주수 김인훈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호족으로 성장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天復 3년(신라 효공왕 7년, 903)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帥로 칭해지는¹⁰¹⁾ 지역사회의 지배자로 등장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州와 小京이 나말여초에는 거의 대호족의 거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¹⁰²⁾, 양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겠다. 궁예 정권이 수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摩震國의 위력이 경남 양산에까지 미쳤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 양산 지방에 호

101) 李純根은 「羅末麗初 地方勢力의 構成形態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67, 1989, pp.29~38에서 사료상에 나타난 지방세력에 대한 표현으로 ①將軍 ②城主(城主將軍・城守・府守) ③帥 ④賊(賊帥・寇賊・盜賊・草賊・賊魁) ⑤기타의 5가지 정도의 용례로 쓰였다고 하였다.

102) 金光洙, 「앞의 논문」 1972, p.122.

족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위급상황이 벌어졌던 사실만은 확인된다.

울산지방에도 호족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울산은 경주와 가까운 항구로서 독자적 호족세력이 성장하기에 알맞은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¹⁰³⁾

朴允雄은 鶴城의 吏였는데, 고려 태조가 南征할 때에 대공을 세워 佐命功臣平章사가 되었고, 興麗伯에 봉해졌다.

(『掾曹龜鑑』 2, 觀感錄)

는 기록이 있는데, 그의 공에 대해서는

신라 동부의 州郡부락이 모두 내항했는데, 溟洲로부터 興禮府에 이르기까지 총 백십여성이었다.

(『高麗史』 1, 태조 13년 2월)

라는 것이다. 이는 태조 13년에 있는 朴允雄의 고려에의 귀부를 말하는 것이다. 울산은 고려초에 興禮府 또는 興麗府로도 불리었는데, 박윤웅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붙은 이름이다.¹⁰⁴⁾ 울산지역 호족인 박윤웅이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강원도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동해안 해안로가 뚫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려는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받음이 없이 신라까지 통할 수 있는 교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 공에 대한 보답이 지역을 府로 승격시키고,¹⁰⁵⁾

103) 具山祐는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 『韓國文化研究』 5, 1992. p. 14에서 울산항의 무역이유를 확보하고, 남한 최대의 노천 철광산인 달천광산을 장악함으로써 독자적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104) 『慶尙道地理志』 蔚山郡 조에 ‘高麗時 郡人朴允雄 佐太祖 興高麗國 以其功……賜號興麗府 謂興高麗也’라 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이 『高麗史』 지리지 및 『東國輿地勝覽』 蔚山郡 인물조에 실려 있다.

105) 旗田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pp.14~15.

백작의 작위를 수여하게 된 이유였던 것이다.

이처럼 부산과 근접한 지역에서 호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부산과 동래에서는 호족의 활동 모습이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부산지역 주민이 신라에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국여지승람』동래군 고적조에 의하면, 부산의 해운대는 최치원의 호인 海雲을 딴 것이라 한다.

최치원은 신라 말의 대 유학자로서 신라의 골품제를 부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가 진성여왕에게 올린 時務 10여조는 人事改革을 비롯한 중앙 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건의안이었다.¹⁰⁶⁾ 이 안은 진성여왕의 재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진골 귀족들의 반대 때문일 것이라 한다.¹⁰⁷⁾ 이후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명승지를 유랑하면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 때 찾았던 장소가 해운대였다. 신라 3최의 일인으로 명명되는 반 신라적 지식인의 한 사람인 최치원을 기리는 것은 부산 사람들의 반 신라적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말에 부산지역에도 신라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자적 호족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3, 동래현 고려 인물조에 나말여초에 살았던 인물로 鄭文道가 있다. 그는 邑吏출신으로 세 아들을 모두 과거에 급제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그의 아들 穆의 묘지명에서도 확인된다.¹⁰⁸⁾ 읍리는 고려의 지방사회에서 戶長·鄉吏 등으로도 불려지는 지방 토호층이다. 『掾曹龜鑑』에

106) 李源鈞, 「孤雲 崔致遠의 生涯」 『孤雲의 思想과 文學』 파전한국학당, 1997, P.23.

107) 李基白, 「新羅骨品制下の 儒敎的 政治理念」 『大東文化研究』 6·7합집, 1969 : 『新羅思想史研究』 1987, pp.234~235.

108) 金龍善, 「新資料 高麗 墓誌銘 17點」 『歷史學報』 117, 1988 ; 『高麗墓誌銘集成』 1993. p. 33~37.

신라 말 衣冠의 후예들이 다투어 무력을 써서 州縣을 지배하였는데, 고려 통합 후에 자진 귀의하지 않은 자는 진압하지 못할까 저어하여 강제로 소재지의 戶長으로 만들어 억눌렀다.

(『掾曹龜鑑』 2 觀感錄, 興陽李氏譜)

신라말 여러 마을의 토착인들이 능히 백성을 호령하고 마을을 다스린 자는 고려통합 후에 그대로 그 직책에 맞는 名號를 주어서 같은 일을 계속하게 했는데, 백성 다스리는 사람을 戶長이라고 한다.

(『掾曹龜鑑』 2 觀感錄, 安東金氏譜)

라 한 것을 보면 邑吏의 전신이 호족이었으며, 각 지방에 걸쳐 세력을 다투던 호족들의 후손이 향리로 전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⁹⁾ 나말여초의 호족이 향리 또는 읍리가 되었다면 동래 정씨의 선조도 신라말 부산지역을 지배하는 성주·장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신라말 촌주들 간의 경쟁이 극심하던 단계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한 촌주는 호족으로 등장하게 되고, 패배한 촌주는 호족의 휘하에 들어가 地方官司를 운영하는 官班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라 하는데,¹¹⁰⁾ 부산의 토착세력도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래의 사료를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부산은 일찍 후백제의 공략을 받아서 더 이상 독자적 성장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려사』 1, 태조 7년 8월조에

견훤이 사신을 보내어 絶影島의 명마 한 필을 바쳤다.

109) 朴敬子, 「高麗 鄉吏制度의 成立」 『歷史學報』 63, p.61.

110) 金周成, 「新羅下代の 地方官司와 村主」 『韓國史研究』 41, 1983, p.78.

라 하였고, 《고려사절요》 1, 태조 9년 4월조에는

견훤의 質子인 眞虎가 병사였다. 侍郎 益萱을 보내어 喪을 호송하니 견훤이 고려에서 그를 죽였다 하여 王信을 죽이고 웅진(공주)에 진군하여 왔다. 왕이 諸城에 명하여 성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견훤이 맹약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키니 하늘이 반드시 도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크게 위엄을 일으켜 싸우시면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패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차서 스스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하였다. 이보다 앞서 견훤이 절영도의 명마 한필을 바쳤는데 뒤에 '절영도 명마가 (고려에) 이르면 백제가 망한다'는 참언을 듣고 이에 후회하여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 줄 것을 청하매, 왕이 웃으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라 하고 있다. 위의 사료는 고려 태조의 인물됨이 견훤에 비하여 뛰어났음을 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은, 후백제의 판도가 벌써 부산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23, 경상도 동래현 산천조에 '절영도는 동평현의 남쪽 8리지점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라 하고, 태조에게 바친 명마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절영도라는 섬 이름도 명마가 빨리 달려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는 데서 얻어진 이름으로 '그림자 없는(절영) 명마를 배출한 섬'이라는 뜻으로 절영도란 이름이 생겨났고, 이것이 줄어져 지금의 影島란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곳에서 산출되는 명마를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후백제의 영역판도가 한반도의 최남단인 부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사례

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명마를 교환한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무렵은 고려와 후백제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曹勿郡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태조는 부하 장수를 잃고 곤경에 처하여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던 한달 뒤에 견훤이 말을 보내왔던 것이다. 이는 전쟁으로 인하여 악화된 양국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려는 의미와 더불어 후백제의 지배력이 한반도 남단의 부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고려에 과시하려는 고도의 전술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긴장이 이로써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 이듬해에도 두 나라는 다시 조물군에서 싸웠고 승부를 가리기가 어려워지자 서로 인질을 교환하기로 하고 화의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맺은 명마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그 동안 외면상으로나마 유지되어 오던 양국간의 휴전상태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후 양자간의 무력대결이 보다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신라 경애왕 4년(927)에 있었던 후백제 견훤의 신라 침공은, 양국의 팽팽한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견훤의 성급한 전략이 노출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신라는 친고려의 성향으로 급선회함으로써, 고려는 후삼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부산에는 철기문화가 발달하던 3세기 무렵에 군현 크기의 소국인 瀆盧國(居柒山國)이 있었다. 그러나 독로국은 4세기 후반 이후 신라의 급속한 팽창정책에 희생되어 독립적 지위를 잃고 신라의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었다. 이 시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군의 하부구조에는 지역민이 거주하는 촌이 있지만, 군사적인 필요성이 증대되면 주변에 성을 쌓아 방어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행정조직은, 상부구조는 군현제적 원리로서의 州郡이 설치되었지만, 그 아래의 농민거주지는 그 이전부터 살아오던 城邑적 구조를 온존시키고 있었다.

7세기 신라가 반도를 통일하면서 전국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를 바탕으로 한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편제하고 그 아래 군현을 설치하여 도독·태수·소수·현령 등을 중앙에서 파견하였다. 수령들은 地方官司에서 지방의 토착세력인 吏의 협조를 받아 지방행정을 운영하였다. 중앙의 政令을 하달하고 농민에게서 수취한 租庸調를 국가에 상납하는 것이 일차적 임무이지만,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생산을 독려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농민들은 촌락과 향·부곡에서 생산활동을 하였고, 그 잉여는 철저히 조사되어 수취의 세원이 되었다. 8세기 경덕왕은 국왕의 진제권력이 흔들리자 환화정책을 표방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는데, 지방의 군현수를 일부 조정하고 그 명칭을 한자식 용어로 개칭하였다. 이 때 부산에 설치된 거칠산군은 東萊郡으로 개명되었다.

9세기 이후 신라의 중앙귀족은 왕위쟁탈전을 일삼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조용조 수취를 도우면서 경제력을 향상시킨 토착 촌주층은 유랑하는 농민들을 모아 무장시키고 城主·將軍을 자칭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주변의 군소 호족을 통합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知州事 혹은 知州諸軍事의 職任을 띠고 지역통치를 주관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양산의 金忍訓, 울산의 朴允雄, 김해의 蘇忠子·蘇律熙 형제 등은 부산인근에서 활약한 호족들로서 그 이름이 사서에서 찾아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부산의 동래에서는 동래 鄭氏 일가에서 호

족을 배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들의 활동상을 찾기는 어렵다. 아마 후백제의 세력이 부산에까지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민족사의 주류가 고려 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 부산은 후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방향설정 부산지방 호족의 자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늦게까지 후백제의 지배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고려 초기에 부산이 지방사회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